

보성군, 이순신 장군 ‘열선루’ 역사문화 조성

10월 신흥동산 개발 마무리 ‘열선루 통합 축제’ 등 개최

전라남도 보성군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장계 ‘금신전선상유십이(今臣戰船尙有十二)’가 작성된 역사적 장소인 ‘열선루’의 중건을 완료하고, 오는 10월까지 신흥동산 종합개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6일 보성군에 따르면 ‘열선루’는 조선 시대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당시 선조에게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로 잘 알려진 ‘금신전선상유십이’ 장계를 올린 장소로, 보성군민에게는 자긍심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군은 이번 중건을 포함한 신흥동산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역사적인 의미를 담은 열선루를 군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누구나 편안하게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생활형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원은 원형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호국전시관, 잔디광장, 전망 휴게

공간, 산책로 등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열선루 전망 개선과 산책로 주변 성곽 조성을 통해 열선루의 정취를 복원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보성의 역사적 인연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2025 열선루 통합 축제’도 개최한다.

열선루는 15세기 초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유재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폐하라는 왕명을 거부하고 명량해전에 출전한 결단의 배경이 된 공간이다. 이후 전란으로 소실된 열선루는 1610년 보성군수 이직과 지역민의 손으로 재건돼 ‘열선정’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군민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일제강점기인 1909년 성곽 철거와 함께 사라졌던 열선루는 지난 2009년 보성초등학교 신축 공사 당시 초석 일부가 발견되며 복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군은 열선루의 상징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



보성군이 오는 10월까지 역사적 장소인 열선루를 중심으로 한 신흥동산 종합개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성군 제공

해 보성을 중심부 신흥동산에 중건 부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복원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새롭게 중건된 열선루는 조선 중기 대형 누각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며 진주 축석루, 울산 태화루와 유사한 양식으로 설계됐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평면에 총면적 2만9794㎡ 규모로 조성되며 하부 기단은 2.3m 높이의 화강석 장주초석과 외별대로 구성된다. 상부는 우물마루와 겹처마, 팔작지붕 등을 갖춘 전통 양식으로 정밀하게 복원했다. 또 건축물의 기둥

상부는 외부 1출목으로 구성했으며 지붕에는 한식 기와를 얹고 용마루·내림마루·추녀마루에는 양성 바름을 시행해 고종과 품격을 더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열선루는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던 충무공의 절절한 호국 정신이 서린 상징”이라며 “열선루를 중심으로 한 역사 공간을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자랑스럽게 찾고, 즐기고, 기억하는 생활 속 역사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서시교 철거 반대’ 서명 정부 전달 서시교 지키기 공동대책위

전라남도 구례군 서시천 교량 철거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 1만명의 서명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됐다.

6일 서시교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와 주민 50여명은 지난 4일 대통령실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차례로 방문해 서시교 철거에 반대하는 군민 서명부를 공식 제출했다.

서시교는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당시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존 교량 철거와 인근 우회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교통 불편과 생활권 단절 등을 이유로 철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1.2km 떨어진 시속 80km의 산업도로(서시1교)로 우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수 군민의 뜻을 존중해 서시교 철거 계획을 재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광양용강도서관

전라남도 광양용강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미취학 아동(6~7세)을 위한 ‘맛있는 그림책 푸드 놀이’와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여름아, 읽자!’ 총 2개 강좌로 구성됐다.

두 강좌 모두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를 느끼고 감정 표현력과 발표력을 키울 수 있도록 책 놀이를 중심으로 한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수강 신청은 7일 오전 10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용강도서관(061-797-386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 ‘우량 씨마늘 보급 증식 기반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재배된 남도마늘 수매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우량 씨마늘 보급 시범사업’ 성과

전라남도 고흥군이 ‘우량 씨마늘 보급 증식 기반 조성 시범사업’을 3년째 추진하며 지역 마늘 산업의 자립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6일 고흥군에 따르면 ‘우량 씨마늘 보급 증식 기반 조성 시범사업’은 고흥군농업기술센터 주도로 남도마늘을 주아(마

늘 꽃대 끝에서 자라는 번식용 작은 씨앗)로 재배해 보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해 관내 113 농가에 22.6톤의 씨마늘을 보급했으며, 올해는 약 127톤의 씨마늘이 농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고흥군 전체 남도마늘 재배면적(464ha) 중

약 11.4%를 자체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씨마늘을 공급받은 한 농가는 “마늘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퇴화해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량 씨마늘은 주아에서 생산돼 중구 갱신 효과가 있고, 일반 마늘에 비해 품질도 우수하다”며 “우량종자를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순천만 어린이 탐조학교’ 본격 운영

전라남도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 어린이 탐조학교’의 첫 수업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어린이 탐조학교는 지난달 21일 개강한 성인 대상 탐조전문가 양성과정 에 이어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순천시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태교육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초등학교 대상 교육이다.

교육은 순천시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총 12주간 4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론 수업은 어울림도서관과 순천만자연생태관에서 이뤄지며,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동천하구 등 다양한 생태현장에서의 현장 탐조활동이 포함돼 있다. 정원과 습지를 연계한 통합형 생태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장소인 어울림도서관은 홍수 피해 저감 목적의 동천변 저류지 위에 어울림체육센터와 함께 복합 개발된 순천시의 9번째 시립도서관으로, ‘애니메이션·정원·우주항공’을 주제로 순천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특화 도서관이다. 순천시는 해

당 일대에 조성된 하천변 저류지와 도로를 활용한 오전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를 이번 교육과정에서 도심 속 탐조 교육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첫 수업은 입학식과 함께 국가정원과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강의, 응급안전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각 분야 조류·생태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하는 이번 교육은 △새의 생태와 울음소리 이해 △도심 속 조류 관찰 △멸종위기종 알기 △나만의 탐조노트 만들기 △우포늪 탐방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형 기본소득’ 추진 전략 마련 새 정부 공약 관련 정책 건의도

전라남도 여수시가 최근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모델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논의했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에서는 인구 감소 등 지방이 당면한 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을 연구했다.

용역사 측은 △기후·에너지 연계형 통합기후배당 △청년기본소득 ‘섬섬 청년소득(가칭)’ △도서지역 수요응답형(DRT) 교통 체계 구축 △모바일 기반 노인 통합 돌봄 시스템 마련 △여수국가산단 폐열 활용 지역난방 △시민 금융주치의 제도 도입 등 8개 기본사회 모델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여수형 기본소득 및 기본사회 모델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실행 전략에 대해 폭넓게 논의됐으며, 특히 실현 가능성과 지속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등 현실적 방안 마련이 주문됐다.

앞서 시는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경기 침체, 청년 인구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고심해왔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여수형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전문가 검토와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일상문화예술실험실’ 참가팀 모집 순천문화재단

전라남도 (재)순천문화재단이 오는 24일부터 8월1일까지 ‘2025 문화예술 아이디어 공모전 일상문화예술실험실’ 참가팀을 공개 모집한다.

6일 순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일상문화예술실험실’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장소, 무심코 지나치는 공간 속 틈에 예술적인 요소를 개입시켜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확장하고자 기획된 문화예술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익숙한 환경에 새로운 시선을 불어넣는 실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프로젝트 실행을 목표로 한다.

공모 주제는 ‘순천의 일상공간 속 틈을 예술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로, 상업적 공간을 제외한 순천시 내 모든 공간이 대상이다.

참가 자격은 문화예술 정책제안 및 프로젝트 실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전라남도민 2~5인 이내로 구성된 팀이다. 개인 및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참여 희망자는 순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8월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co3606@cfsc.or.kr)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접수 후에는 전문가서류심사를 통해 10팀 내외를 선정한다. 이들은 오는 8월23일부터 24일까지 순천만에코촌에서 열리는 아이디어 캠프에 참여하게 된다.

아이디어 캠프를 통해 최종 3팀이 프로젝트 실행팀으로 선발되며, 팀별 300~700만원의 실행비가 차등 지원된다. 이후 전문가 실행 멘토링을 바탕으로 순천시 일원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www.cfsc.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화정책팀(061-746-29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